

현실 동떨어진 폭염대책... “기준치 낮추고 법제화”

폭염대책 권고 “꿈 같은 이야기”
35도 이상 불가피 외 작업중지
지난해 폭염산재 35도 이상 0건
“작업자 위한다면 법 제정 해야”

“물 주고 그늘막에서 쉬엄쉬엄하라고 말은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건설사 입장에서)이윤이 남기 때문이죠”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야외작업 도중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정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기준치가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대표적 여름철

산업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주의’단계에선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고’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시간 15분 휴식과 옥외작업을 중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무조건 중지를 권고했다.

이 같은 폭염 영향예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이같은 권고성 대책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기간에 민감한 건설사들에게 ‘법’이 아닌 ‘권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유동의 건설현장에서 만난 작업자들은 뜨거운 햇살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이마에 흐르는 땀줄기들을 연신 닦고 있었다. 한 작업자가 도로 교통 정비를 위해 서 있던 바닥은 금세 땀방울로 젖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 등 큰 규모의 공사현장은 안전팀에서 돌아다니면서 휴식이나 얼음물 등 권고사항대로 준수하기도 하지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 권고로는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대책의 기준 온도가 높게 설정돼 오히려 폭염산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정된 온열질환 산업재해에서 35도 이상의 환경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31도 미만의 경우 10건(32.2%), 31도 이상 8건(25.8%), 33도 이상 13건(41.9%) 등 총 31건으로 조사됐지만 35도 이상은 0건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을 따를 경우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옥외작업 ‘중지’ 기준이 되는 것인데, 지난해 폭염으로 인

한 산재가 모두 35도 미만의 환경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외현장의 작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권고 수준이 아닌 ‘법 제정’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영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형식적으로 얼음이나 생수 지급은 되고 있으나 규정대로 정확하게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면서 “중소기업이 시공사로 나선 건설 현장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선 보여주기식 ‘권고’가 아닌 ‘법 제정’이 필수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국전쟁 시기 장성·영광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군경·적대세력 민간인 42명 학살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시기 전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장성 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3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장성군에 거주한 민간인 39명이 장성읍 성산리 성산동산, 삼계면 부성리 절암제, 북이면 사거리 신창골 등에서 사살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장성경찰, 지서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희생 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대부분은 20~30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광에서는 주민 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영광군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공무원과 우익인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좌익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인, 참고인 진술과 1기 진화위 조사 결과보고서, 6·25사변피살자명부, 영광 피해자현황조사, 제적등본,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희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진술과 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한 12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국가에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교육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슬기로운 생애시민생활 등 2종

광주시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도입에 맞춰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2종을 개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적용 첫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학교 자율시간’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개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생애시민

생활’을, 서부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중학생활동’을 개설했으며,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친다.

‘슬기로운 생애시민생활’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한 지구생태환경의 상황과 생태환경 문제를 다룬다. 학교와 사회, 이론과 실천, 지성과 감성 등을 연계해 개인의 행복한 삶과 지구 생태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슬기로운 중학생활동 탐구’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태도와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학교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과 주현호 잭슨피자 광주 상무·첨단점 대표 등이 9일 광주 동구 무등육아원에서 ‘잭슨피자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이벤트’ 행사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먹고 있다.

나건호 기자

추석 앞두고 피자 기부에 아이들 함박웃음

잭슨피자, ‘사랑나눔 이벤트’ 진행
동구 무등육아원에 20판 전달

‘잭슨피자’가 추석을 앞두고 피자 기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잭슨피자와 전남일보는 9일 광주 동구 무등육아원을 찾아 피자 20판을 전달하는 ‘잭슨피자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피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인 ‘슈퍼 잭슨’, ‘하와이안’, ‘페퍼로니’ 등으로, 잭슨피자 상무점에서 방금 만들었다.

주현호 잭슨피자 광주 상무·첨단점 대표는 이날 육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몇 학년 인지 가장 좋아하는 피자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고 아이들도 이에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주 대표는 “비록 작은 선물일지라도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흐뭇해했다.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단순히 후원받는 것보다 피자가 전달되는 과정 속의 배경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사를 통해 나눔문화가 더 알려져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게 있어 긍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잭슨피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 20일 열린 ‘2024 전남일보배 전국 아마추어골프 대추전’에서 지정용 버디 총 갯수 누적량만큼 피자를 기부하는 ‘채리티(Charity-자선)’ 행사를 추진했다.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 저변 확대에 동참하기 위한 이벤트로 골프대회 중 특정 파3홀을 사전 지정해 버디가 나온 숫자만큼 잭슨피자를 불우아동시설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피자 기부는 광주시 등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이날 무등육아원에 전달됐다.

서울 이태원에서 시작해 뛰어난 맛으로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인 잭슨피자는 광주 2곳(상무점·첨단점)을 포함해 전국 48개 지점(잭슨피자 47곳·잭슨클럽하우스 1곳)을 운영 중이다.

박찬기 기자

싸움 말리던 숙부에게 흥기 휘두른 50대 ‘입건’

피해자 손목에 중상... 병원 이송

다툼을 말리던 숙부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완도 노화읍의 자택에서 자신의 숙부 B(59)씨의 손목을 흥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손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119특수구조대 헬기를 타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말리자 흥기에 흥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